**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과제물**

202334-153942 임준희(컴퓨터 과학과) 광주/전남 지역대학

(1) 1985년 룩셈부르크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가입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의 이름은 ( **솅겐조약** )이다.

(2) 유럽은 문화적으로 그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데, ( **그리스 ⋅ 로마**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를 공유한다는 점을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이탈리아의 ( **베파나** ) 축제는 기독교 신앙이 민속 신앙과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유럽의 다원적 문화를 보여준다.

(4) 산타클로스 같은 환상의 인물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전통은 16기 종교 개혁가 ( **마틴루터** )에 의해 시작되었다.

(5) 유럽축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비 매치에는 ( **엘 클라시코** )가 있는데, 이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사이의 라이벌 경기를 가리킨다.

(6) 유럽 프로 축구 리그의 한 시즌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초가을에 리그를 시작하여 이듬 해 늦봄에 종료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은 ( **추춘제** )이다.

(7) 17기 프랑스에서 신사는 ( **오네트 옴므** )라는 말로 불렸는데, 이는 ‘정직한 사람’이 라는 뜻으로, 신사란 명예롭고 사교적이며, 예의 바르고 세련된 인간을 지칭했다.

(8)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래 의미는 “귀족은 ( **의무** )를 갖는다”는 뜻이다.

(9) 유럽에서 동물 신랑의 이야기는 스트라파롤라가 16기에 출판한 『흥겨운 밤』에서 발 견할 수 있다. 그 중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 **돼지왕** )이 다.

(10) ( **그림 형제** )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독일의 이야기를 찾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아동과 가정의 메르헨』(1812-1815)을 출판하였다.

(11) 2015년부터 노르웨이에서 방영되었던 하이틴 드라마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유럽 각국에서 리메이크된 작품의 제목은 ( **스캄** )이다.

(12) 유럽 내 국가 간 교육을 통한 협력과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된 교환 프로그램으로, 2014년 명칭 변경을 통해 평생 학습의 성격을 띠게 된 프로그램의 이름은 ( **에라스무스 플러스** )이다.

(13)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7년 독일의 철학가 루돌프 판비 츠의 ( **유럽 문화의 위기** )라는 저서에서이다.

(14) 정신분석학자 ( **라캉** )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는데, 그에게 주 체는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상상적 단계’와 ‘상징적 단계’로 주체 형성의 메커니즘을 나누었다.

(15) 1949년에 발표한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페미니즘 이론가의 이름은 ( **시몬 드 보부아르** )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대러 제재를 함으로써 러시아산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과 관련하여 수출입은 물론 신규 투자, 운송이 축소 ⋅ 중단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함으로써 보복하였다. 그동안 러시아를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오던 유럽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해졌으며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앞으로 써야 할 천연가스가 부족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같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물가상승 등과 같은 문제까지 이어지며 2023년도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유럽 각국은 난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은 1240만 명, 이 중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그 절반인 580만 명을 차지한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때는 유럽이 난민 수용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나, 후에 유럽에서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자 난민을 도울 여력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며 현재 유럽 각국은 난민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EU나 유럽 각국 보수 성향 집권당이 난민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는 여러 방안을 내놓았으나 의견이 충돌하여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유럽의 분위기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극우 정당이 우세할 정도로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난민 정책으로 인한 유럽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모색되었다. 먼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EU는 REPowerEU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의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담았다. 또한 유럽 각국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는 것을 통해 전력원을 비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자원을 도입하거나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이집트, 카타르 등과 같은 러시아 외의 국가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IEA는 천연가스 건물을 개조하여 수급이 어려워진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난방을 열 펌프 기반으로 교체하는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려는 추가 노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방안이 거론되었다. EU의 난민 정책인 EU 회원국이라면 회원국 인구와 경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난민을 나눠서 받도록 하는 ‘신 이민 ⋅ 난민 협정’을 잠정 합의했다. 또한 국가가 난민 수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난민 1인당 2만 유로(한화 약 2800만 원)의 기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는 헝가리가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 폴란드가 “다른 EU 회원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EU의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결론적으로 정책은 무산되었다.